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발전자문위원회 출범

지역현안 해결·역점과제 추진 목표

광주·전남의 지역현안 해결 및 역점과제 추진을 목표로 연구원의 방향성 자문 등을 위한 '제4기 광주전남연구원 발전자문위원회(위원장 정인채)'가 새롭게 출범했다. 〈사진〉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지난 23일 오전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연구원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2023년도 연구사업 방향에 대한 혜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제4기 연구원발전자문위원회는 경제계·공공기관·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리더 14명으로 구성됐다.

발전자문위원에는 정인채(새천년종합건설 회장), 한상원(다스코 회장), 김형석(남해종합건설 사장), 임민자(성일이노텍 대표), 이흥우(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이미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윤병태(나주시장), 이주희(동신대 총장), 민영돈(조선대 총장), 박민서(목포대 총장), 김선남(전남매일 대표이사), 김낙곤(광주MBC 사장), 조덕선(무등일보 회장), 오주(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총회장)가 위촉됐다.

제3기에 이어 제4기 발전자문위원장으로 연임·선출된 정인채 회장(새천년종합건설)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원이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광주·전남 지역발전에 생명을 불어 넣는 선도적인 역할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혜안과 지혜를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연구원이 지속적인 내부혁신과 양질의 연구성과로 지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며,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연구원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사업 방향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2016년부터 연구원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동구체육회, 청장배 궁도대회 개최

광주시 동구체육회는 지난 24일 광주시 남구 사동 광주 관덕정(사두 강원주)에서 제3회 광주시 동구청장배 궁도대회를 개최했다. 〈광주 관덕정 제공〉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청렴캠페인 진행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23일 봉선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광주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재난경험자 힐링프로그램 진행

광주광역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센터장 나치형)는 최근 재난경험자 13명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가 재난 경험자들을 위한 마음 치유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광주광역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1,2차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2차 행사는 10월 28일-29일 이틀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아로마 테라피, 건강검진, 숲 테라피 등 재난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 방향으로 구성됐다.

한편,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상담활동가 98명이 활동하며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소설 '만다라' 김성동 작가 별세

장편 '만다라'와 '국수'로 유명한 김성동〈사진〉 작가가 25일 오전 건국대충주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5세.

1947년 충남 보령 출생인 고인은 1964년 서울 서라벌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도봉산 천축사로 출가해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1975년 '주간종교'에 첫 단편 소설 '목탁조'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정식 승적이 없었던 고인은 당시 소설 내용을 문제 삼은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제적한다'는 통고를 받기도 했다.

1978년 '한국문학'에 중편 소설 '만다라'가 당선됐으며, 이듬해 장편으로 개작해 출간하면서 문단에서 주목받았다. 또 다른 대표작으로는 '국수'(國手)와 '꿈'이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55 2022년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	55 SBS 10 뉴스
10	00 2022년 제1차 정당 정책 토론회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법대로 사랑하라(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물 건너온 아빠들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남도 지오그래피(재)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고양이 목에 마이크달GO(재) 55 UHD 숨터(재)	00 KBS 뉴스타임 1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연중 라이브(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20 닥터 365 25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황금가면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으라차차 내 인생	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50 법대로 사랑하라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개는 훌륭하다		40 천원짜리 변호사(재)
12	10 100인의 리딩쇼 지구를 읽다(재)	30 아이 러브 스포츠 55 통합뉴스룸 ET(재)	00 스포츠 매거진 4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5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윙스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로보카 폴리
08:35 그린조끼 구조대
08:50 띠띠뽀 띠띠뽀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09:20 빅 블루
09:35 타타와 쿠마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3:50 EBS 다큐프라임
14:45 바닷가 사람들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그린조끼 구조대(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미니특공대 애니멀트론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9:00 말괄량이 삐삐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바닷가 사람들
20:40 세계테마기행
〈여름 이야기, 파키스탄 -가이드북 밖 핫플〉
21:30 한국기행
〈한번쯤 로망대로 1부 농사도 강남스타일〉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6일(음 9월 1일 壬午)

☎ 010-9790-8237

子 36년생 상호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48년생 일반적인 보편성과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60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72년생 잡다함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승시킨다. 84년생 태도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된다. 96년생 현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니 빨리 벗어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6, 80

丑 37년생 치우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하리라. 49년생 아예 아니함만 백번 못하느니라. 61년생 구상에 그친다면 무의미하니 실제적인 적용을 해라. 73년생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거늘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85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도다. 97년생 절대로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3, 83

寅 38년생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용기를 갖고 임하라. 50년생 기존의 것을 지키는데 주력함이 현명하다. 62년생 겉모양은 허술해도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74년생 경중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야 할 때이니라. 86년생 관계와 입장까지 감안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98년생 잔꾀 부리다가는 크게 실수할 수도 있도다. 행운의 숫자 : 00, 93

卯 39년생 끊임없는 관심이 지속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느니라. 51년생 차원을 달리하는 성대함이 보이니 잘 활용해 보자. 63년생 실제적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자제함이 무방하다. 75년생 상호 간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다. 87년생 당황할 수밖에 없는 형세에 놓이리라. 99년생 변동한다면 불길하리라. 행운의 숫자 : 05, 52

辰 40년생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52년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자신이 변해야 국면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6년생 지금은 번거롭더라도 머지않아서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88년생 희구하여 왔던 바를 성취하게 된다. 00년생 절호의 기회이다. 행운의 숫자 : 42, 68

巳 41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셈이로다. 53년생 잘 되어 갈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5년생 의욕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실행해야 한다. 77년생 가능성은 반반이니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89년생 손에 땀을 쥐며 지켜봐야 할 일이 있다. 01년생 기존의 정황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일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40, 70

午 42년생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리라. 54년생 다층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66년생 파문을 일으키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78년생 힘든 고비가 남아 있으니 각오해야 한다. 90년생 쇠잔했던 운로가 소생하기 시작한다. 02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본원이다. 행운의 숫자 : 44, 91

未 43년생 실행한 후에 밝혀도 되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55년생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수용하자. 67년생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79년생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의 의사에 따라 줘야 할 형국이다. 91년생 흔한 일은 아닐 터이니 잘 살펴보자. 03년생 작심했다면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31, 58

申 44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 56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68년생 신경쓰고 싶지 않겠지만 스트레스 좀 받을 것이다. 80년생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92년생 즉시 시원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년생 금전적 가치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7, 96

酉 33년생 생소하다고 해서 굳이 경계할 이유까지는 없다. 45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57년생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으니 지금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69년생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리라. 81년생 알뜰해야 실속이 있는 법이다. 93년생 상호적이다. 행운의 숫자 : 38, 98

戌 34년생 흔들리지 말고 태연자약해야겠다. 46년생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58년생 관계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옳다. 70년생 완전하게 고칠 필요가 있겠다. 82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는 국면이다. 94년생 매우 중하므로 세부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50

亥 35년생 가랑이에서 비파 소리가 날 정도로 분주하겠다. 47년생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59년생 첫눈에 마음에 든다고 길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자. 71년생 만남과 교류 속에 발전을 이끄는 정보가 있다. 83년생 부실한 판국이므로 잘 살펴보자. 95년생 독창성이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3, 67